

# 몸의 언어로 전하는 이야기

리뷰 - 광주시립발레단 희극 발레 '코펠리아'



마을 사람들과 무용수들이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의 종막.

## 발레 몰라도 감정 고스란히

발레에서 연무가 뿔어져 나온 뒤, 과학 과학자 코펠리우스의 자동인형 '코펠리아'가 얼굴을 내민다. 인형 역할의 무용수는 팔을 아래로 굽는 '양 바'로 시작해 역방향인 '양 오'까지 정교한 플드 브라(팔동작)를 시연한다.

한 몸짓이 페르마타(늘임표)위에 놓이면 그 다음 동작은 기민한 프레스토 위에서 펼쳐진다. 정해진 패턴처럼, 완주와 속주를 오가는 자동인형의 춤사위는 기계적이지만 사랑스럽다.

올해 초 프리뷰 격인 'Voice of spring'에서 봤던 것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은 치열한 연습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18-1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무대화된 희극 발레 '코펠리아'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이 지난 19일 '코펠리아'를 23년 만에 전막 공연으로 선보였다. 아가자기한 프랑스 발레의 묘미와 19세기 자동인형에 대한 로망을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상연 전부터 대중적인 기대를 모았다.

기대와 함께 작품에는 내러티브 전달에 대한 염려도 뒤따랐다. 독일 낭만주의 작가 에른스트 호프만의 소설 '모래 사나이'를 극화한 까닭에, 예술 감독들은 무언극(無言劇)인 발레의 서사 전달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이번 전막 공연은 그러한 염려를 종식시켰다. 총 3막에 걸쳐 막간마다 간단한 내용을 담은 스토리라인을 스크린에 송출했으며, 섬세한 마임 연기를 발레 형식 안으로 끌어와 부족한 서사성을 보충했다.

가령 '춤추다'는 머리 위에서 손목을 교차해 돌린 후 풀어주는 것으로, '분노심'은 주먹을 쥐고 울리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두 손바닥을 심장에 가져다 대면 '사랑한다'는 의미이며 손가락을 찌르는 것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뜻이었다.

이 같은 마임 동작들은 작관적으로 이해가 됐다. 동작에 곁들여지는 주역들의 섬세한 감정 연기 또한 '표정도 발레를 위한 근육'이라는 사실을

호프만 소설 '모래 사나이' 극화 23년만에 전막 공연 선보여 섬세한 마임 연기 스토리 전달 마주르카 등 민속춤 여흥 고조

환기했다. 로맨틱 발레의 대표적 작품인 만큼 그 특징들도 선명히 드러났다. 발끝을 세워 춤추는 포인트 기법과 남녀 주인공의 낭만적인 파드되가 여러 번 등장했다.

특히 스와닐다가 프란츠(박범수)와 함께 추는 '보리이삭 파드되'는 상징적인 갈라졌다. 두 사람이 보리이삭 하나를 들고 사랑의 몸짓을 선보이자 공연장에는 훈인을 앞둔 연인의 행복감이 감돌았다.

마을 축연 분위기를 연출한 조입에서는 폴란드 민속무용인 '마주르카'나 헝가리 민속무 '차르다



1막에서 코펠리우스 박사가 자동 인형 코펠리아를 공개하는 모습.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쉬'도 펼쳐졌다. 이 장면들은 내용 전개상 필수적이지 않으나 오락성, 여흥을 고조시키는 디베르티스망으로 읽힌다.

일찍이 20세기 안나 파블로바 등 황실 발레단은 이 대목을 즐기고 2막으로 압축한 버전을 선보였다. 많은 발레단들이 단막이나 개작 버전을 상연해 왔으나 이번 공연에서는 디베르티스망을 포함한 '전막' 특유의 온전한 매력을 선사했다.

스와닐다(강민지 분)가 코펠리우스의 방에 잠입한 뒤 '인형의 춤'을 추는 2막은 일종의 클라이맥스였다. 비밀 공간에서 무용수가 튀어나와 병정 연기를 하거나, 굳어 있던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도 돋보였다.

스와닐다는 중화풍 인형이 들고 있던 부채, 병정의 칼 등 소품을 활용해 짧은 '부채무', '검무'를 쳤다. 정중동의 미학, 극중극의 재미를 비롯해 스와닐다 친구들(임예섭 외 5인)이 펼친 유태 있는 몸짓도 볼거리다.

말미에 코펠리우스는 스와닐다에게 인형이 망가진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영주가 대신 황금 주머니를 건넸다. 코펠리우스는 이에 만족하고 전 출연진과 어우러져 춤을 춘다.

'행복한 결말'이 희극 발레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종막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으나, 황금만능주의를 매개로 해피 엔딩에 도달한 점은 의미 층위에서 희비극적 요소로 볼 수 있다.

강민지 수석 발레리나는 "매일 하는 발레지만 공연할 때마다 설레고 떨린다"며 "발레단의 안무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관객들이 있어 이번에도 무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연 지휘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지휘과 등을 졸업한 박승유가 맡았으며 협연 오케스트라로 카메라타 전남이 출연했다. 광주시립발레단은 또 다른 호프만 원작 '호두까기 인형-크리스마스 시즌 공연'을 준비 중이다. /최류빈 기자 rubi@

## '선경문학상' 김룡 시인 선정

작가상은 한혜영 시인

제5회 선경문학상 수상자로 김룡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식물복지' 외 53편이며 상금은 1000만원.

시 전문지 '상상인'과 선경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제5회 선경문학상 수상자로 김룡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맡은 이병용 시인, 이성혁 문학평론가는 "김룡 시인의 작품들을 읽어어나가는 동안 시 한 편 한 편이 제 목에서부터 긴장감을 몰아가는 시들이 많았다. 시들은 낭창하고 자유로우며 재미있다"며 "김룡 시인 특유의 음악성 또한 느껴졌는데 시인이 시를 쓸 때의 '심적 유희'를 견뎌내는 기분이기도 했다"고 평했다.

수상 소식을 접한 김룡 시인은 "지난해 많이 아팠다. 달과 비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당황했다"며 "몸은 아파도 마음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시가 그런 거고 사랑이 그런 거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시인은 200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2007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됐으며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이번 수상시집으로 '새를 키우고 싶은 개가 있을 겁니다'가 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2회 선경작가상은 한혜영 시인의 '겨울을 잃고 나는'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신선한 상상력과 깊이 있는 시적 시선을 보여준 작품들이라고 판단되었다. 동물들과 식물들, 사물들의 세계에 자유자재로 융합하며 시를 생성해 내는 시인의 시적 능력이 돋보였다"



김룡 시인



한혜영 시인

고 평했다.

한 시인은 "우체국 앞을 지날 때면 그리운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쓰거나 따뜻한 털목도리를 짜서 부치고 싶다"며 "동시대에 같은 별에서 만났다는 사실 만으로도 얼마나 눈물겨운 인연인가. 한 세상 살다 가는 일에 있어 사람만 한 위로가 또 있을까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시인은 1994년 '현대시학' 시 추천, 199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태평양을 다리는 세탁소', '뱀 잡는 여자', '검정사과농장' 등이 있다. 이번 수상시집으로 '맨드라미 붉은 마당을 맨발로'가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선경문학상은 선경산업이 주최하고 '상상인'과 선경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삼금 등 부대비용은 선경산업에서 지원한다. 선경문학상 수상작과 선경문학상 작가상 수상작은 2024년 '상상인' 겨울호(제10호)에 소개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오후 3시) 인천시 계양구 선경산업 강당에서 열린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댄스·힙합·타악 ... 청춘 열정 뜨거웠네

청춘문화 기획단, 장르별 무대 '주말은 청춘' 6회 공연 성료

스트리트 댄스부터 힙합, 타악까지... 청춘 기획자들의 꿈과 열정으로 채워진 '문화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재단)과 청춘문화 기획단이 10월 한 달간 총 6회에 걸쳐 '주말은 청춘'을 선보였다.

재단은 축제를 위해 지난 4월 청춘문화기획단을 조성했으며 스트릿댄스, 힙합, 디제잉, 인디음악, 퓨전타악, 코스튬플레이 등 여섯 장르별로 기획 무대를 꾸렸다.

지난 5일에는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스트릿 댄서들이 모여 토너먼트식 워킹댄스 배틀을 펼쳤다. 빛고을댄서스 소속 이은지(32) 씨가 기획을 맡았다. 이어 DJ준디(46·홍성만)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무대를 선사했다.

12일 열린 '힙합·볼꽃' 무대에는 제이통, 이메스 등 확고한 마니아층이 있는 뮤지션들이 출연했다. 행사를 기획한 김다혜(31) 씨는 언더그라운드 로컬 무브먼트 클럽 '심해'를 운영 중이다.

웹소설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현실에서 재현하는 '코스튬플레이·이상'은 13일 스카이크드 서지원(23) 대표가, '림즈', '몽키피파렛', '더터라콘' 등이 출연한 '푸름' 행사는 권선제(투파이브)



'주말은 청춘' 댄스 프로그램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씨가 기획했다. 끝으로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과 타악그룹 얼수, 율림블로코 등이 타악 레퍼토리로 축제 막을 내렸다. /최류빈 기자 rubi@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